



# 자연재해 물고 온 재앙의 괴물 잠재운 다리



‘래원교’는 호이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베트남·중국·일본 문화 교류의 통로이자 자연재해를 막는 풍수지리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다리다.(위) 작은 수로를 따라 양쪽으로 늘어난 고풍스런 양식의 건물들에서 내뿜는 불빛은 호이안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아래) /베트남 호이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42> 5부 베트남 편

### 호이안 래원교(來遠橋)

호이안 = 김경민 기자 kki@kwangju.co.kr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 호이안(Hoian)은 베트남 중부 광남성 투분강 어귀에 있는 작은 도시다. 수도 하노이에서 다낭까지 비행기로 1시간, 다낭에서 차를 타고 30km를 달려 도착한 호이안.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작은 강, 소형 여선, 전통 방식의 그물, 그리고 양옆으로 늘어선 고풍스러운 집들은 “역사가 흐르지 않고 멈춰선 도시”라는 현지인 가이드 응아씨의 말을 실감케 했다.

1999년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초기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호이안 옛 거리(Pho co Hoian)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대부분 건물은 15~19세기에 지어진 것들이다.

베트남 화폐 2만동(한화 약 1000원) 뒷면에 있는 래원교(來遠橋-cau rai Vien)의 실물을 찾기 위해 호이안행을 결정

## 일본인이 400년전 건설...中·베트남 교류 가교 동서양 문화 공존 호이안 옛거리 ‘세계문화유산’

했다. ‘멀리서 온 여행객을 위한 다리’라는 뜻을 지닌 래원교는 길이 16m, 폭 3m의 작은 다리지만 호이안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특이한 점은 이 다리를 1593년 일본인들이 건설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만든 다리가 어떻게 베트남 화폐에 등장할까’라는 호기심이 취재진을 잡아끌었다.

이 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이안의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베트남 중부에 자리잡고 있는 호이안은 400여 년 전 중국, 일본, 인도의 중간지점이자, 해로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 탓에 중국과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배들의 기항지였다.

호이안은 물러드는 각국 상인들로 인해 국제항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고,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호이안에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 마을과 일본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 이 다리를 건설한다. 처음 건설 당시에는 ‘일본다리’라고 불렸다. 래원교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화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일종의 풍수지리학적 전설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꾸(Cu)라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었

다. 어찌나 큰지 그 머리는 인도에 꼬리는 일본, 몸통은 베트남에 걸쳐 있었다고 한다.

이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각국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다. 괴물이 큰 입에서 내뿜는 입김으로 인해 인도는 해마다 가뭄에 시달려 농작물이 메말랐고, 심해(深海)에 걸쳐 있는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베트남에서는 홍수가 일어나 해마다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호이안도 그중에 하나였다. 또 괴물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호이안으로 향하던 수많은 무역선 상인들이 태풍과 해일에 목숨을 잃었다.

일본 사람들은 괴물을 죽이기 위해 괴물의 몸 중 가장 약한 장소인 이곳에 일본 다리를 지었다. 급소를 점거당한 괴물은 죽었다고 한다. 호이안 사람들은 괴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래원교에 작은 사원을 만들었다.

일본인들이 만든 베트남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래원교는 생각보다 소박하게 생겼다. 오늘날 건축학적으로 봐도 이 다리는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보통 다리를 평평하게 한 것과는 달리 래원교는

아치형태다. 다리 위에는 나무 기둥과 지붕으로 덮여 있어, 회랑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사원 중앙부에는 앞서 말한 괴물의 영혼과 호이안을 향하던 중 태풍에 숨진 상인들을 기리기 위한 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다리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다리 양쪽에는 특이한 동물상이 놓여 있다. 동쪽에는 개의 상이, 서쪽에는 원숭이 상이 서 있다. 다리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해가 원숭이 해였고, 개의 해에 다리가 완공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많은 통치자들이 원숭이 해와 개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리를 지나면서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는 사자성어가 언뜻 머리를 스쳤다.

이유가 어쨌든 일본인이 건설한 다리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적 포용성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호이안 옛 거리에 ‘퐁흥고개’, ‘찜가사당’ 등 래원교와 같이 문화적 흔적이 뛰어난 건물이 수없이 많다. 호이안의 아름다움은 밤에 완성된다. 밤만 되면 수로를 따라 불을 밝히는 오색 등이 마을 전체를 수놓는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등불을 밝힌 등에 소원을 담아 수로에 띄워보내기도 한다.

호이안 문화유적지 보존관리센터 관계자는 “호이안은 베트남,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 건축 양식이 모두 존재할 정도로 문화적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힌다”며 “정부는 주택, 상가, 사원 등 800여 개가 넘는 역사적 유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침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몰란비)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gole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